

## 2021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1. 7. 23.(금) / 등록금심의위원회

### □ 회의 개요

- 일시: 2021. 7. 12.(월) 13:30~14:27
- 장소: 본관 4층 총장부속회의실
- 참석자: 재적위원 8명 중 **7명 참석**
  - 당연직: 교학처장(위원장), 교학제2부처장(부위원장), 총무과장
  - 위촉직: 학생대표 2명, 학부모 1명, 전문가 1명
- ※ 배석: 업무담당주무관
- 불참자: 학생대표 길민서

### □ 회의 안건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일부 감액 여부 안(감액불가 안)

### □ 회의 결과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일부 감액 여부(안) 감액불가 최종 가결**
  - 재적위원 8명 중 5명 동의, 2명 부동의, 1명 불참

### □ 주요 회의 내용

- **(위원장)** 재적위원이 6명이 참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업무담당주무관에게 진행 요청 함. [개회 시각 13:33]
  - \* 정수인 학생위원 13:38분 참석
- **(업무담당 주무관)** 위원소개와 2021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고하고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일부 감액 여부 안(감액불가 안)에 대하여 설명.
- **(위원장)** 보고 받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학생위원)** 학생대표 입장에서 등록금감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함.
- **(위원장)** 학생위원들이 정리하신 설문조사자료를 참고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람.
- **(업무담당 주무관)** '원격수업'의 적법성과 예술정보관을 포함한 시설물 및 기자재 사용범위 및 시간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는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학생위원)** 온라인학습 공간구축 등 학교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학습주체인 학생입장에서 피해 정도를 해석하는 것은 학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장)** 학생입장에서 최소한의 학습의 질적 보호 유지 중요함.
  - 부득이 각 원의 사정에 따라서 시설사용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버츄얼 시스템을 통해서 또 다른 학습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음.
- **(위원장)** 전문가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의견을 물음.
- **(전문가위원)**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명확하고, 계층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음.
  - 등록금을 감액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하고, 또 어떤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음.
  - 일률적인 반환은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 **(학부모위원)** 타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했더니 오히려 강의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음.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강화하여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가 장기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효율적이라 생각함.
- **(위원장)** 예술교양학부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 새로운 교수법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함. 또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장점들이 있는거 같음. 비대면 수업이 확장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부모위원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보고 학교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 있음.

- **(교학제2부처장)** 논의 진행이 뒤에 있어 비대면 수업을 통해 학습의 질이 떨어졌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강의평가 만족도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가 직전년도 3년 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남.

이 자료들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해서 학습권침해가 이루어졌다거나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학생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고, 등록금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서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개선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학교의 입장이 실천되길 바람

- **(학생위원)** 이론수업은 원격수업으로도 정상적학사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학교는 실기위주의 수업을 하는 학교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람.

- **(위원장)** 각 원·과별 시설물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임.

등록금 감액이 아닌 여러 위원들이 말씀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보강하고, 전년에 일종의 '학업장려장학금'을 지원했듯이, 본부차원에서 학생회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적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함.

- **(총무과장)** 재정건전성을 책임지는 부서입장에서 우리학교의 등록금 추이를 살펴 볼 때 2008년 이전 수준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설명함.

내부적으로 대학정상화는 대면수업 확대라고 생각하며, 교원·학생 70% 백신접종 전후를 기점으로 대면수업 확대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우리학교도 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 정부의 방침대로 선제적·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협조하는 학생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어떨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 **(학생위원)** 어떤 형식으로 든 작은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모든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음.

- **(위원장)** 토론을 마친 후, 위원 모두가 투표한 결과 참석위원 7명(재적위원 8명) 중 5명 동의, 2명 비동의 하여 위원장은 원안 가결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함.

[폐회 시각 14:27]